


원주시역사박물관 기획전진
「그때를 아시나요-1」

원주 최초의 시민축제 군도제


원주시역사박물관 기획전진 「그때를 아시나요-1」

군도제

원주 최초의 시민축제

 원주시역사박물관



 원주시역사박물관

원주시역사박물관 기획전진전 「그때를 아시나요 - 1」

군도제

원주 최초의 시민축제

목 차

04	1. 원주 최초의 종합적인 시민축제 [군도제軍都祭]
06	2. 3일간의 화려한 축제의 현장
55	3. 축제의 중심: 원주시민
65	4. 기록으로 보는 군도제

인사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침해한지도 두 해가 되어 갑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것이 많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신명나게 놀던 그 모습,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 찼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우리 기억 속에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역사박물관에서는 그 축제의 현장을 기억하고 느껴 볼 수 있는 작은 전시를 마련하여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군도제는 1971년에 원주에서 개최된 행사로 올해로 개최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에서는 각종 명절을 계기로 소규모 행사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특정할 날을 정하여 시민 전체가 참여한 문화행사는 군도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비록 1회에 그치고 말았지만, 당시 군인, 학생을 포함 원주시민 모두가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71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의 축제의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 70여 점과 관련 신문 기사 8개, 대한 뉴스 방영 영상 등을 선보입니다. 군도제 관련 각종 기록물을 통해 1971년 당시 축제의 현장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역사박물관에서는 원주시민들의 옛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획사진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기획사진전 「그때를 아시나요」 시리즈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17일
원주시역사박물관장 김홍배

원주 최초의 종합적인 시민축제 군도제 軍都祭

원주에서 종합적인 시민축제가 열린 것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의 일이다. 과거 정월대보름이나 단오·추석·설을 계기로 마을마다 소규모 행사를 치른 기록은 있지만,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원주라는 지역차원의 종합문화행사를 치른 것은 1971년의 「군도제」가 처음이다.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원주공설운동장 등에서 거행된 군도제는 원주군도제위원회(原州軍都祭委員會) 주관으로 추진되었다.



[1971년 당시 원주시내와 원주공설운동장]



[1971년 당시 원주공설운동장]

《이중연 원주 군도제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과 취지문》

〔인사말〕

희망의 새봄이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금안하심을 양축합니다. 민족중흥의 사명을 기필코 이룩하려는 71년대의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려는 우리 고장 원주에서 지방문화 창달의 기점을 세우려고 금번 제1회 군도제를 시행하게 된 것을 14만 원주시민과 함께 경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특히 군·관·민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군도제는 고대로부터의 군복 및 군사 제도를 표현하여 방공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서는 통일조국의 염원을 실현해 보려는 우리의 굳센 단결임을 전 시민에게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고장에서는 이러한 문화행사가 없었던 만큼 그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성원해 주시어 이번 군도제를 계기로 발전하는 우리 고장을 건설해 나갑시다.

〔취지문〕

우리 고장은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개국한 조그마한 취락을 이루었던 옛 예맥의 고도로서 지금 원주의 모습은 오랜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인구 11만을 능가하는 신흥도시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교통 등 제 부분의 선구적 중심지가 되어 영서의 관문으로서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장은 풍요한 지역사회 건설을 지향하여 줄기찬 상공업 도시 건설의 힘찬 고동이 울려 퍼지고 있으며, 이 시대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은 자랑스러운 긍지를 지닌 시민인 동시에 그만큼 우리 세대의 두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이 지워져 있습니다.

지난날 이 고장의 발전에 헌신하신 조상들의 유지를 받들고 내일의 보다 나은 번영된 이 고장 건설에 숭고한 역사의 전통을 길이 보전함으로써 그 빛을 더하게 하고, 이 고장 발전을 지원하는 뜻에서 정성 어린 군도제 축전을 베풀어 조상들의 얼을 새기고 평소 우리가 지녀온 재능과 예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서 시민에게 현대정신에 애향심과 단결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도제의 의의

군사도시라는 특수성에 따라 군·관·민이 참여하여 화합을 다진 군도제는 원주 지역에서 치러진 최초의 종합문화행사였지만, 군사문화의 이미지가 짙다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 1회 개최로 맥이 끊어지게 되었다. 그 후 원주치악제, 강원감영제, 원주따뚜를 이어 현재 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까지 시민 축제의 꽃을 피우고 있다.



3일간의 화려한 축제의 현장

첫째 날 : 1971년 4월 9일

4월 9일 전야제는 봉화제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촛불 행진과 불꽃놀이·축종·축등 점화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9일 오후 8시, 남산 추월대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되면서 관내 각 교회와 사찰에서 일제히 축종이 울려 퍼졌다. 오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우두산에 제1회 군도제란 글자를 새겨 축제 분위기가 절정을 이루었다. 또한 세존대 - 해미산성 - 봉산미 - 우두산에서는 봉화제가 올려졌다. 시내 일원에는 축등이 밝혀지면서 남녀 중학생 2천여 명의 초롱불 행진이 시작되었고, 공설운동장에서는 원주고·대성고 밴드 연주, 무용, 노래자랑 등 시민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홍보물]



[홍보물]



[전야제 - 축등 행사(초롱불 행진)]



[전야제 - 시민의 밤 행사]



[전야제 - 시민의 밤 행사]



[전야제 - 시민의 밤 행사]



[전야제 - 시민의 밤 행사]



[전야제 - 시민의 밤 행사]



[전야제 - 시민의 밤 행사]



[전야제 - 시민의 밤 행사]



[전야제 - 시민의 밤 행사]



[전야제 - 시민의 밤 행사]

둘째 날 : 1971년 4월 10일

4월 1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경축식을 비롯한 어린이 백일장, 국군 아저씨 그리기, 반공 포스터전, 시민의 밤, 역대 군복 가장행렬, 농악 경연 대회, 사진 공모전, 전국궁도대회, 도내 아마추어 복싱대회, 병기 및 반공 사진전, 예비군 줄다리기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경축식은 백두진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신 1군사령관·엄병길 지사 등 많은 기관장과 내빈·학생·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막이 올랐다. 이날 경축식에는 축하 비행 속에 축포가 울리면서 2천여 개의 고무풍선을 날려 맑은 하늘을 오색으로 수놓았으며 원주여중고와 성화여중고 생들의 군도(軍都) 원색 마스크임이 있는 다음 역대 군장놀이(대성고교의 조선·구한말 경비병 시대)와 군악 의장 시범·육군군악대 시범·군복 가장행렬도 이루어졌다. 또한 궁도대회는 전국에서 모여든 6백여 명의 공사로 9일부터 학봉정에서 개최되었는데, 10명의 여공사도 참가해 이채를 띄었다. 복싱대회는 기독교청년관 광장에서 30여 명 선수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경축식과 다양한 행사들>



[경축식]



[경축식]



[경축식]



[경축식]



[경축식]



[경축식]



[경축식]



[경축식]



[경축식]



[경축식]



[행사장 모습]



[경축식]



[행사장 모습]



[경축 비행 축포]



[경축 비행 축포]



[경축 비행 축포]



[육군 군악대 시범]



[육군 군악대 시범]



[육군 군악대 시범]



[육군 군악대 시범]



[의장대 시범]



[의장대 시범]



[의장대 시범]



[의장대 시범]



[의장대 시범]



[의장대 시범]



[농악 경연대회]



[농악 경연대회]



[농악 경연대회]



[마스게임]



[마스게임]



[마스게임]



[마스게임]



[마스게임]



[마스게임]



[마스게임]



[마스게임]



[역대 군장놀이]



[역대 군장놀이]



[역대 군장놀이]



[역대 군장놀이]



[역대 군장놀이]



[역대 군장놀이]



[역대 군장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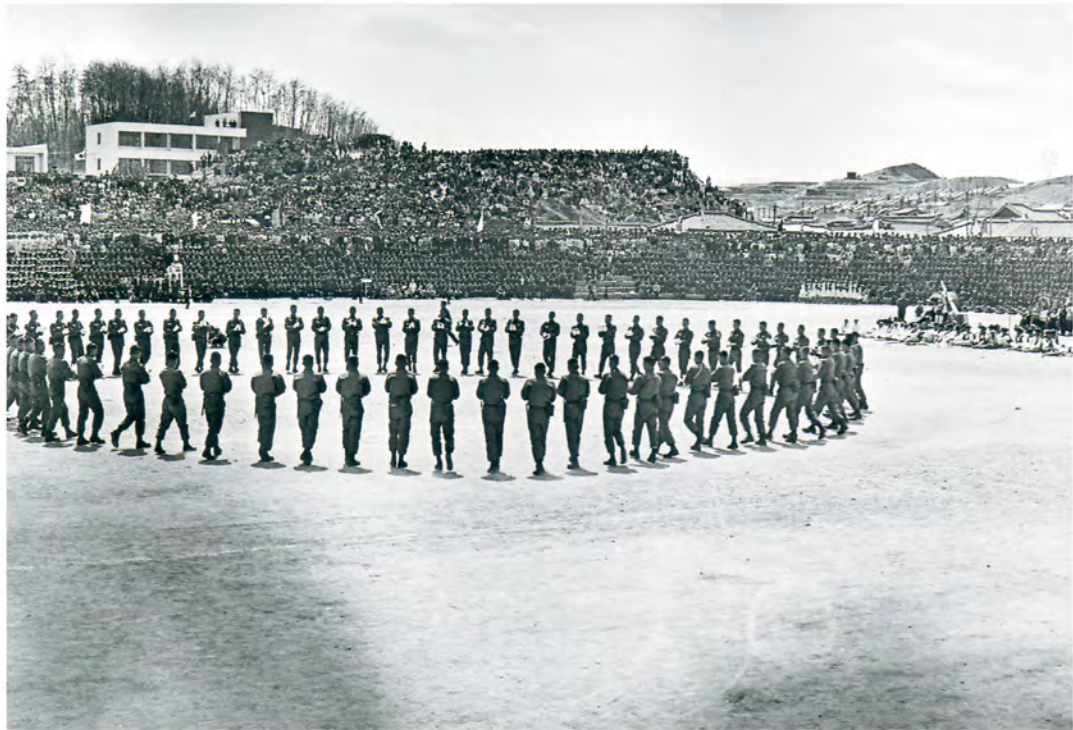
[군무]



[역대 군장놀이]



[군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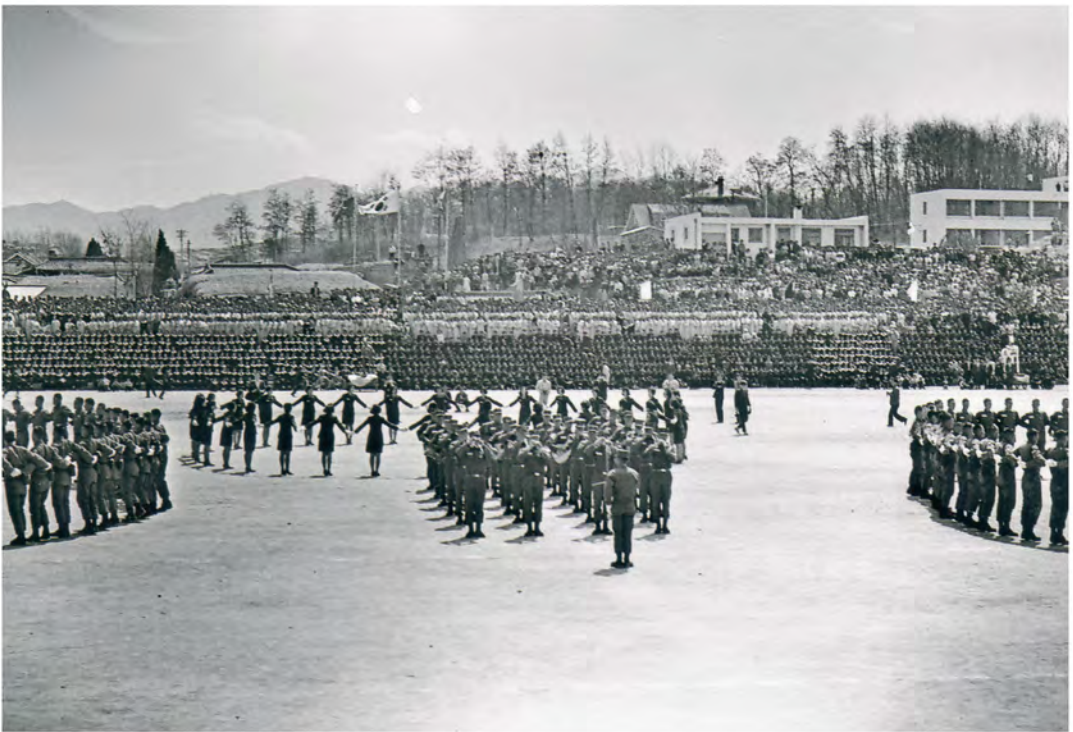
[군무]



[군무]



[군무]



[군무]

<퍼레이드>



[군인 시가 퍼레이드]



[군인 시가 퍼레이드]



[군인 시가 퍼레이드]



[군인 시가 퍼레이드]



[역대 군복 가장행렬]



[역대 군복 가장행렬]



[역대 군복 가장행렬]



[역대 군복 가장행렬]



[역대 군복 가장행렬]



[역대 군복 가장행렬]



[역대 군복 가장행렬]



[역대 군복 가장행렬]

<대회와 전시>



[궁도대회]



[궁도대회]



[궁도대회]



[궁도대회]



[궁도대회]



[도내 아마추어 복싱대회]



[궁도대회]



[도내 아마추어 복싱대회]



[도내 아마추어 복싱대회]



[병기 및 사진전]



[반공 포스터전]



[병기 및 사진전]

셋째 날 : 1971년 4월 11일

마지막 날인 4월 11일 4시에는 원주공설운동장에서 종합시상식이 개최되었다.



[병기 및 사진전]



[시상식]



[시상식]

축제의 중심: 원주시민

군도제 행사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경축식에 백두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한신 1군사령관·엄병길 강원도지사·김용운 원주시장 등 많은 기관장 참석하였다.



[시상식]



[시상식]



[경축식의 내외귀빈 : 백두진 국무총리]



[경축식의 내외귀빈 : 백두진 국무총리]



[경축식의 내외귀빈 : 한신 1군사령관과 백두진 국무총리]



[경축식의 내외귀빈 : 왼쪽부터 엄병길 강원도지사, 한신 1군사령관, 김용운 원주시장]

축제의 중심에는 원주시민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경축식 행사에는 원주여중고와 성화여중고생들이 참가하여 마스게임을 진행하였고, 대성고교 학생들도 역대 군장 놀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 외에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원주시민들이 군도제의 중심에 있었으며, 그 모습을 모두 담을 수 없지만 사진 속 남은 1971년의 원주시민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군도제 속 원주 사람들]



[군도제 속 원주 사람들]



[군도제 속 원주 사람들]



[군도제 속 원주 사람들]



[군도제 속 원주 사람들]



[군도제 속 원주 사람들]



[군도제 속 원주 사람들]



[군도제 속 원주 사람들]



[군도제 속 원주 사람들]



[군도제 속 원주 사람들]



[군도제 속 원주 사람들]



[군도제 속 원주 사람들]



[군도제 속 원주 사람들]



[군도제 속 원주 사람들]

기록으로 보는 군도제

[강원일보]



축제祝祭로 뭉싸인 원주原州
1회 군도제軍都祭 오늘 전야제前夜祭
불꽃놀이·축종祝鍾·봉화제 등 다채多彩

제1회 군도제를 맞이하는 원주시는 시내 곳곳에 아치와 플래카드·청사초롱이 매달려 축제무드에 휩싸였고 거시적인 문화행사에 시민들은 부푼 기대를 걸고 있다. 9일 하오 8시 원주공설운동장에서 전야제를 비롯해 11일까지 3일간 베풀어질 군도제는 지난날 고장의 발전에 헌신한 조상들의 유지를 받들고 이 고장 건설에 송고한 역사의 전통을 보전함으로써 그 빛을 더하게 하고 재능과 예지를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처음으로 열리는 군도제는 9일 하오 8시 남산 추월대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되면서 관내 각 교회와 사찰에서 일제히 축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세존대~해미산성~봉산미~우두산에서 봉화제가 울려지고 시내 일원에 축등이 밝혀지면서 초롱불행진이 시작된다. 공설운동장에서는 국민가요와 무용 노래자랑 등 시민의 밤이 베풀어진다.

10일에는 상오 10시부터 공설운동장에서 경축비행 축포·고무풍선 날리기·마스게임·역대 군장놀이·군악의장 시범·육군군악대 시범·역대 군복 가장행렬·시민의 밤이 열리고, 어린이 백일장을 비롯하여 국군아저씨 그리기·반공 포스터전·반공 사진전·농악경연대회가 열리며, 궁도대회와 도내 아마추어 복싱대회·병기 및 사진전·예비군 줄다리기 대항 등이 11일까지 열린다.

[강원일보] 1971년 4월 9일 신문기사



제1회 군도제軍都祭 개막
군악軍樂·의장儀仗 시범, 가장假裝행렬 등 다채

제1회 군도제가 10일 상오 10시 원주공설운동장에서 백두진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신 제1군사령관·엄병길 강원도지사 등 많은 기관장과 내빈·학생·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가짐으로써 막이 올랐다.

이날 경축식에는 축하비행 속에 축포가 울리면서 2천여 개의 고무풍선을 날려 맑은 하늘을 오색으로 수놓았으며, 원주여중고와 성화여중고생들의 군도軍都 원색 마스크게임이 있는 다음 역대 군장놀이(대성고교의 조선·구한말 경비병 시대)와 군악의장 시범·육군군악대 시범·군복 가장행렬에 들어갔다.

이날 백두진 총리는 치사를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국사 참여를 강조하고 군도제를 통해 북한동포를 자유의 물결로 이끌자고 말했다. 경축식에 앞서 9일 밤 8시에 올려진 전야제에서는 폭죽이 터지면서 오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으며, 불꽃놀이로 우두산에 제1회 군도제란 글자를 새겨 축제무드에 절정을 이뤘다.

이어 시내 2천여 명의 남녀 중학생들이 초롱불을 들고 시가를 누비고 공설운동장 스탠드에 2층으로 둘러선 다음 원주고와 대성고교의 밴드 연주로 전야제의 밤을 보냈다.

11일까지 베풀어지는 군도제는 이날 각 부분별로 원주와 강당에서 어린이 백일장이 열렸고, 원주시보건소 광장에서는 어린이들이 국군아저씨 그리기에 바빴으며, 원성군청 앞에선 반공 포스터전이, 군인극장 앞에선 병기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또한 궁도대회는 전국에서 모여든 6백여 명의 공사로 9일부터 학봉정에서 열리고 있는데, 10명의 여공사도 참가해 이채를 띠었다. 복싱대회는 기독청년관 광장에서 3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강원일보】 1971년 4월 10일 신문기사



재능과 예지 한것
3일간의 열띤 군도제軍都祭 어제 폐막閉幕

지난 9일 밤 전야제를 스타트로 막이 오른 제1회 군도제는 연 3일 동안의 역대 군장놀이·역대 군복 가장행렬·궁도대회 등 25가지의 다채로운 행사가 끝남으로써 11일 하오 5시 폐막식과 함께 그 막을 내렸다.

군사도시의 상징으로 베풀어진 제1회 군도제는 지난날 이 고장의 발전에 헌신한 조상들의 유지를 들고 이 고장 건설에 송고한 역사의 전통을 보존함으로써 그 빛을 더하게 하고 재능과 예지를 마음껏 발휘하게 했다.

9일 밤 전야제를 비롯해 10일 공설운동장에서 경축식이 있는 다음 하오부터는 성화여고 500명 학생이 신라 화랑의 원색복장에 칼춤의 마스크 게임을 해 5만 군중의 갈채를 받았다. 이어 대성고등학교 2백여 명의 역대 군장놀이가 있었는데, 조선시대의 화공전 및 시대별 교련 시범이 베풀어져 조선시대의 전술과 군복을 보여주었다.

1군 군악의장대의 시범과 육군본부 국악대의 시범연주도 관중의 시선을 끌었다. 하오 2시부터 원주·원여중·대성고 학생들의 역대 군복 가장행렬에 들어가 운동장에서 A도로를 완전히 메워 도로변에 몰려든 시민들을 열광케 했다.

【강원일보】 1971년 4월 12일 신문기사



기간도 촉박해 졸속拙速에 흐르고 말았다. 전통적인 향토문화 행사를 갖는데 어떤 행사에 결부시키려고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이번 행사는 온 시기가 떠들썩하면서도 알맹이는 별로 남긴 것이 없는 결과가 되었고, 이틈에 예술부문은 아예 소외당한 결과가 되었다. 이번 행사 중 가장 큰 수확은 역대 군장놀이와 역대 군복 가장행렬을 들 수 있다. 고중에 맞춰 42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조선·구한말 경비병 시대의 복장과 무기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전술에 따른 시대별 군장놀이는 한국에서 처음 갖는 행사로 관중으로 하여금 과거의 병기·군복·전법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또 야전군에서 많이 참여하여 군악의장대 시범과 육군본부 군악대 시범 연주 등은 성황을 이뤘으며, 장비와 장병을 동원한 시가행렬은 군도제軍都祭의 의의를 살렸으며, 시민으로 하여금 막강한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1회 군도제의 행사를 한마디로 말해 화려한 전야제와 3시간에 걸친 경축식에 이어 운동장에서의 역대 군장·군복 행렬과 국군의 군악·국악·의장 시범, 5백여 명의 신라 화랑의 매스게임 등은 화려하고 성대히 베풀어진데 반해 향토예술부문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쳐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친 느낌마저 든다.

【강원일보】 1971년 4월 ●일 신문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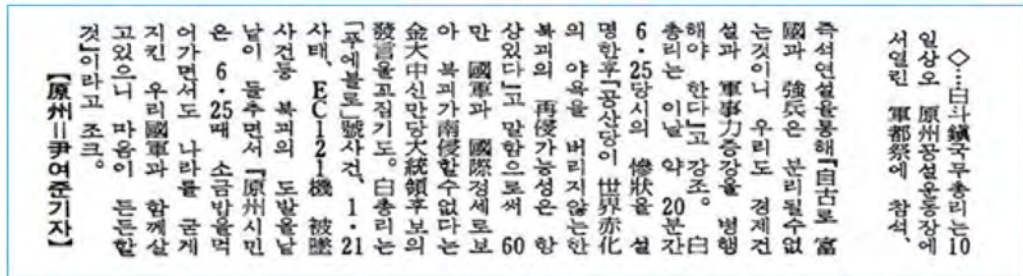
군장軍裝 과시한 군도제軍都祭

원주原州서 처음 가진 게 의의意義

군사軍事도시 원주原州의 향토문화제인 제1회 군도제軍都祭가 9일 밤 전야제를 비롯해 11일까지 연 3일간 25가지의 행사를 끝냄으로써 화려했던 막을 내렸다. 진해鎭海의 군도제[해군海軍]에 겨루는 군사 도시를 상징하고 조상의 얼을 받들어 예능藝能과 기지를 마음껏 펼쳐보기 위해 마련된 군도제는 도내서 처음 있는 큰 규모인 550만 원의 예산으로 베풀어져 한마디로 성대히 행사를 끝마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음 갖는 군도제인만큼 준비과정의 짧은 탓으로 미비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며, 군사적인 경축행사에만 치우치다보니 예능과 기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예술부문이 소외당해 규모 있는 향토종합문화행사가 되지 못한 것이 흠이 되고 말았다. 예술부문에서 베풀어진 것은 어린이 백일장과 그림그리기·사진공모전 뿐으로 경축식慶祝式 행사에만 모든 신경을 쏟은 채 예술부문 행사는 완전 소외당했다.

제1회 군도제 준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싹터 3월에 본격적인 추진 작업을 해왔는데, 당초계획은 연극 부문과 음악·무용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서울~강릉 간 고속도로 기공식 날짜와 맞추어 개최하려고 일정을 여러 번 연기하는 바람에 준비가 여러 번 뒤죽박죽이 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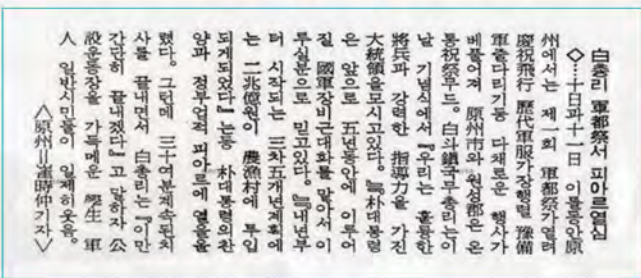
【경향신문】



백두진白斗鎭 국무총리는 10일 상오 원주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군도제軍都祭에 참석, 즉석 연설을 통해 “자고自古로 부국富國과 강병强兵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니 우리도 경제 건설과 군사력軍事力 증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백 총리는 이날 약 20분간 6·25 당시의 참상參狀을 설명한 후 “공산당이 세계世界 적화赤化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북괴의 재침再侵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말함으로써 60만 국군國軍과 국제國際 정세로 보아 북괴가 남침南侵할 수 없다는 김대중金大中 신민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꼬집기도. 백 총리는 「푸에블로호」 사건, 1·21사태, EC121기 피추被墜 사건 등 북괴의 도발을 낱알이 들추면서 “원주시민은 6·25때 소금밥을 먹어가면서도 나라를 굳게 지킨 우리 국군과 함께 살고 있으니 마음이 든든할 것.”이라고 조크.

【경향신문】 1971년 4월 12일 신문기사

【동아일보】



백 총리 군도제軍都祭서 피알 열심

10일과 11일 이들 동안 원주原州에서는 제1회 군도제軍都祭가 열려 경축慶祝 비행飛行·역대 군복軍服 가장행렬·예비군豫備軍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베풀어져 원주시와 원성군은 온통 축제 무드. 백두진白斗鎭 국무총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는 훌륭한 장병將兵과 강력한 지도력指導力을 가진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박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에 이루어질 국군國軍 장비근대화를 맡아서 이루실 분으로 믿고 있다.”·“내년부터 시작되는 3차 5개년 계획에서는 2조억원이 농어촌農漁村에 투입되게 되었다.”는 등 박 대통령의 찬양과 정부 업적 피알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30여 분 계속된 치사를 끝내면서 백 총리는 “이만 간단히 끝내겠다.”고 말하자 공설운동장을 가득 메운 학생·군인·일반 시민들이 일제히 웃음.

【동아일보】 1971년 4월 12일 신문기사

[조선일보]



군장행렬軍裝行列

군장軍裝을 한 대성고大成高 학생 189명은 5만 시민이 운집한 공설운동장에서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전법戰法인 팔진법八陣法·육화진법六花陣·장술槍術·활 쏘는 법·군사교련 등을 시범하고 군장놀이 가장행렬을 벌였다.

고대古代 예맥의 부활復活 군도제軍都祭

「군장軍裝놀이」 속에 옛 전통傳統 되살려, 치악雉岳 기슭엔 축제祝祭의 횃불
관동關東 제일의 교통중심지交通中心地

화사한 봄벌을 베고 자르는 무녀舞女들의 칼날에선 화랑花郎의 기개가 섬광처럼 빛났다.
흰 저고리 옥색치마·남색 전복戰服의 소녀군少女軍이 휘두르는 칼날은 충忠·효孝, 분홍색·주황색 치마에 전립戰笠을 쓴 소년군의 날렵한 무태舞態는 신흥과 임전무퇴臨戰無退, 살벌함이 없이 선녀처럼 부드러운 율동은 살생유택殺生有擇의 불심佛心이었다. 10일 오전 10시 원주시 학생동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군도제軍都祭의 서막序幕을 화려하게 장식한 성화여고聖花女高 학생들의 검무劍舞 마스게임은 군도제의 의의와 원주의 발전 의지를 한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었다.

치악산雉岳山으로 아늑하게 둘러싸인 고도古都의 축제는 군도軍都의 전통을 되살려 승공통일의 염원을 실현하고 단결된 시민의 힘으로 문화와 발전을 기약하자는 뜻이었다. 원주시原州市는 고대 예맥濊貊의 도읍이었다. 신라新羅 때에는 구주오경九州五京 중의 북원北原이 되어 11군郡 27현縣을 다스렸다. 고려高麗 초기 전국에 11개소의 조창漕倉을 두게 되었을 때에도 흥원창興元倉이 이곳에 설치되었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감영監營·토포영討捕營을 설치하고 감시監司 및 중군中軍을 두었다. 보안역保安驛을 설치하고 철방察訪을 두었다. 당시 원주감영의 감사는 신라 때의 권한보다 더욱 많은 강원江原 26군郡을 통치하여 관동關東 제일의 정치·경제·문화·교통의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번영을 구가했던 원주시가 몰락하기 시작한 것은 구한말舊韓末 때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으로 감영·토포영·보안역 등이 폐지되고 충주관찰부忠州觀察府로 예속되었다 다시 춘천관찰부春川觀察府로 이관되어 원주면原州面으로 격하되었다.

1937년 원주읍原州邑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 해방 이후 발전을 거듭할 무렵 6·25동란으로 잿더미가 되어 버렸다. 이 고장 출신들은 수년 동안의 전쟁으로 흩어지고 피난민들을 비롯한 타 지방인들이 군대를 따라 이주해와 생활의 터전을 마련 하려고 애썼으나 중앙 통을 휩쓴 세 번의 큰 화재는 이들에게 재건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시화市花는 장미꽃으로

50년대 초반부터 중앙동 시장 통에서 H여관을 경영해온 박모(57)씨는 “휴전 이후 원주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쟁의 재발이 강박관념으로 남아있어 집도 크게 좋게 짓지 못하고 대부분이 군인들을 상대로 한 여관·음식점·다방·주점 등 서비스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산물을 취급하는 재목상인, 유출되는 군수품을 거래하는 상인, 군납업자와 윤락녀들이 들끓는 야전野戰 부락이었다고 말했다.

학성동鶴城洞에서 전기제품상을 열고 있는 K전파사의 김모(51)씨는 원주시민들의 생활 사유방식이 달라진 것은 60년대 초반부터라고 말했다. 10여 년 동안 군대의 보호조처와 그들을 상대한 장사에서 자본을 축적한 피난민들은 원주에서 완전히 생활기반을 구축하면서 상업권商業權을 장악하게 되었고 계속된 평화와 안정은 향토인들을 다시 불러 들였다. 안정되어가는 생활기반 속에서 이제는 원주민原州人이 되어버린 피난민과 향토인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발전시키자는 데에 힘을 모으게 되었고 문화를 그리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67년 지방 유지들의 모임인 ‘치악회雉岳會’에서 원주시의 시화市花를 장미로 정하고 제1회 장미문화제를 열었으나 예산이 없어 이듬해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원주시에 개발붐이 일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여서 인동仁洞·학성동鶴城洞 일대에는 대대적인 토지구획사업이 벌어지고 일산동一山洞 일대에는 현대주택이 들어섰다. 비행장에서 학성동으로 이어지는 A도로 밖에 없던 시내에서는 B·C의 간선도로가 크게 뚫렸고 1만여 점포가 들어서 중앙동中央洞의 중앙시장中央市場이 현대식 2층 연립 건물로 세워졌다. 지프Jeep차와 트럭의 먼지로 주름살을 펴기가 어려웠던 거리는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군인극장과 군인백화점 등을 비롯한 3, 4층의 건물이 눈에 띄게 생겨났다. 69년에는 우산동牛山洞에 12만 평의 경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원주의 모습을 뒤바꾸어 놓았다.

6백%나 오른 땅값

금년에 기공식을 본 영동고속도로의 영향으로 시내의 땅값은 6백%나 뛰어올라 원주시는 바야흐로 흥분된 개발무드에 들떠 있을 정도였다. 52.96km의 넓이에 12만 명의 인구를 가지게 된 원주시는 20만 인구의 광역도시를 만들자는 의욕에 벽차있었다. 코로나·택시가 3백 대나 구르고, 오토바이는 5백여 대, 자전거는 3천여 대가 붐볐다. 각종 서비스업이 30%로 줄었고 상업이 36%로 늘어나는 등 주민의 구성 비율이 달라졌다. 이러한 개발 무드 속에서 이룩된 것이 군도제軍都祭였다. 김용운金龍雲 시장市長과 이중연李重淵 유도회장儒道會長·황주익黃柱益 문화원장文化院長 등 21명의 유지들은 70년 10월 강원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원주시의 옛 전통을 재현, 발전시키고 조상들의 유지와 얼을 되살리기 위한 시민의 잔치를 베풀기로 했다는 것이다. 노산鸞山 이은상李殷相, 중앙대 교수 임철재任哲宰씨 등의 자문을 얻어 문화제의 이름을 군도제軍都祭로 정했다. 이것은 원주시가 오늘날 막강한 야전군野戰軍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군도軍都일 뿐만 아니라 6·25동안 때를 비웃, 고금을 통해 군사요충지가 되어왔다는 역사와 전통을 살리자는 연유에서였다.

원주는 고려 충렬왕 때 거란군契丹軍을 무찌른 곳이고 임진란壬辰亂 때 총장공忠壯公 원호元豪와 원주목사原州牧使 김제갑金梯甲, 의병장 이은찬李殷瓚·민공호閔肯鎬 등이 치악산의 영원鶯原·해미海尾·금두金頭 산성山城에서 왜적을 무찌르고 장렬하게 전사한 역사의 고장이다. 이중연李重淵 군도제위원장軍都祭委員長 등은 이러한 뜻을 사려 시민의 의지를 승공통일勝共統一 정신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것을 군도제의 제1의로 삼았다고 풀이했다.

9일의 전야제로부터 시작된 군도제는 25가지의 각종 예술·문화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군軍과 관련 있는 성화여고생의 화랑花郎 검무劍舞를 서막으로 장식했고 대성고생들의 군장軍裝놀이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이 군장놀이는 황주익 문화원장이 국립박물관과 육사박물관을 비롯, 여러 전문가들을 2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준비한 것으로 사명대사四溟大師가 이끈 승군僧軍, 의병장들이 왜군을 칠 때 동원한 속오군束伍軍, 구한말舊韓末 군대, 국방경비대國防警備隊의 각 복장과 청룡도靑龍刀·삼지창三枝槍·양지창兩枝倉·대포大砲·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큰북·징 등 각종 무기를 만든 것이다. 해발 1천2백m의 치악산 산봉에서 밤마다 피워 올리는 봉화와 축포, 상가마다 달아 놓 청사초롱, 시내를 누비는 축하 시민들의 물결 속에 ‘재건원주再建原州’의 시민의지가 돋보였다.

【조선일보】 1971년 4월 15일 신문기사

【원주신문】

군사도시의 축전 펼쳐
활발한 문화행사 고장 발전 촉진

흔히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총체적 집합체라고 하거나 생활양식이라고들 한다. 이번 「북원의 어제와 오늘 - 원주의 문화행사」 편에서는 우리 고장의 풍습과 세시풍속, 언어, 생활양식 등을 제외하고 미술·음악 등 일부분에 국한해 전개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단어가 지극히 포괄적이고 각 방면에 걸쳐있어 세 차례로 엮을 계획이다.

문화행사의 변천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양식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쌓아올린 것이 문화라면 원주 소도읍에서 출발한 토착문화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다. 인구가 많지 않고 산간지역이었던 원주는 강이나 들에 모여 농경사회를 이루고 산기슭 등지에 모여 살았다. 주민들은 추수를 하면 감사하는 뜻으로 집단적인 제천의식祭天儀式을 올리고 축문을 지으며 신화도 나눠 나뉘며 제례를 올렸다. 이와 함께 우상偶像을 만들어 놓고 원시적 생명감에 만족하였을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아직도 원주에는 성황당제, 무속신앙 등이 남아있고 이것이 발전돼 추수기가 가까워지면 치르는 제전이 남아있다.

삼국시대 원주는 이렇다 할 문화행사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나름대로의 문화행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전해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다만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진 구룡사 등 불교사찰에서 풍기는 건축양식이나 당시에 건립되거나 축조돼 현재까지 전해지는 원주지역에 흩어진 유물들로 짐작을 할 따름이다.

고려 중엽에는 유교가 전파돼 유교적 문화가 생성됐고 이어 서원書院 등이 생겨 학문을 틈틈이 익혀왔다. 현재 향교에서 봄·가을에 행해지는 석전대제釋奠大祭 전통제례의 한 모습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구한말 원주는 의병장이 큰 활약을 했으며 한국전쟁 때는 중요한 거점이면서 격전지로 의병문화 및 군사문화로 접목됐다. 원주는 남부지역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유적이나 불교유적 기타 갖가지 유적과 함께 항일운동 군사적 요충지로 발전되고 변화되어 오면서 60년대부터는 군부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 소비형태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군도제軍都祭는 바로 이러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이점을 살려 출발한 것으로 1971년 제1회 행사가 거행됐다. 군도제의 기원은 신라시대부터 명실공이 군도로서 북방경략의 요충지였고 북원경이란 명칭으로도 그 뿌리를 알 수 있다.

군도제의 전야제는 봉수烽燧 봉화烽火 불꽃놀이 축증 축등정화 초롱불 시가행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시가지지를 장식했다. 본제행사에서는 하늘로부터 축하비행 오색연막과 함께 군악대의 연주 역대장군놀이 군악·의장대 시범 마스게임 등의 행사에 이어 신라 고려 조선 현대에 이르는 역대 군복의 변모과정을 표현한 가장행렬로 펼쳐져 행사의 절정을 이루었다. 부대행사로는 곳곳에서 무기전시회 반공포스터 반공사진전 예비군대향 줄다리기와 전국 규모의 공도대회가 열렸다. 또 어린이 미술대회 그네·널뛰기 외에 힘의 상징으로 복싱대회도 열렸다. 민·관·군이 일치단결하여 성대하게 치러진 군도제는 격년제로 실시키로 했으나 예산확보와 준비과정 등 어려움으로 빛을 잃고 말았다.

군사도시 원주를 상징했다는 점에서 군도제는 취지가 좋았으나 살리지 못해 중단됐고, 1965년에 설립된 가톨릭센터에서 일반인들의 전시회 및 각종 서예발표 등 행사가 열리면서 지역 문화의 시초석이 된다. 이밖에도 원주극장 군인극장 등 각 극장에서도 단편영화가 상영됐고 60년대 중반 이들 공연장 전시장의 대거 개관으로 원주지역 문화의 출발점을 맞게 됐다.

【원주신문】 1989년 5월 11일 신문기사

원주시역사박물관 기획전진전 『그때를 아시나요 - 1』

군도제

원주 최초의 시민축제

발행처 원주시역사박물관

발행일 2021년 8월 17일

총괄 김홍배

기획 김성찬

진행 김나영

전시지원 김가람, 서보람, 심 현

진행협조 박광식, 이상훈, 하정화, 홍이지, 전영은

행정지원 조성기, 권현미, 신승록, 임형식, 이예슬

디자인 디자인퍼플

사진보정 전제인(사진만들기)

원주시역사박물관

주소: 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134

전화번호: 033-737-4371

홈페이지: whm.wonju.go.kr

※ 팸플릿에 실린 글과 사진 도판은 원주시역사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